

5월 16일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신경을 못 씁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꼭꼭 미리 다스려야 합니다. 안 다스리면 안 됩니다. 결국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일을 저지릅니다. 정상이 아니면 전부 비정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야합니다. 낮게 해준다고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사람을 보면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으로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중심해서 잘 들 해나가십시오²⁴⁴.

말씀을 잘 심어줘야 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술이고 뵈이고 말씀을 꼭 심어줘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본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뿐입니다. 재미는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 하신 것, 성경의 말씀을 세밀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크지만 커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전도를 해왔어도 기도하면서 관리를 잘 해줘야합니다. 계속 전도만 하고 관리 안하면 인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 기도를 더 깊이 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를 많이 봐야 하는데 서류를 못 볼 정도로 바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났으면 이런 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20년 동안 있었으니 하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귀하게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했으니까 기도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애들은 세밀하게 완벽하게 해줘야 합니다. 원고 써놓고 책을 보더라도 20-30번씩 교정해야 책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다. 없는 것도 또 교정 또 교정 또 보태야하고 또 더해야하고 또 빼야하고 그렇듯이 애들도 똑같습니다. 글 쓰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완전히 버릇도 고쳐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맴니다. 이런 것을 잘해줘야 합니다. 자기관리 하면서 애들 관리도 잘 해주십시오.

선생님 못 본 10년 동안도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사람 많이 있었으면 설교를 못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설교가 된 것은 사람들을 안 만나서 말씀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났기에 책을 60권 쓸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사람을 만나도 리듬이 딱 깨져버립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눈 속에 꽂 들어가서 바람 소리도 안 듣고 그렇게 가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20년 동안 산 속에 처박혀서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밖에 나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